



GLOBAL HR FORUM 2025

A-4: 고용 없는 성장, 우리의 일자리는 안녕한가?

## AI 시대, '쉬는 청년' 50만 시대의 해법은?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취업진로처장 전성민

[smjeon@gachon.ac.kr](mailto:smjeon@gachon.ac.kr)



# AI Boom, Youth Bust?

The Dilemma of the Unemployed Generation

# AGENDA

- 개요
- 기술의 도입과 일자리
- 청년고용
- AI 시대의 일자리
- 결론 및 토론

# 1. 개요: AI 시대의 위기 진단: '쉬는 청년' 50만 시대

- AI가 저숙련/반복 업무를 넘어 창의적 영역까지 대체하며 청년층의 '취업 진입 장벽' 자체를 높이고 있음
- 15~29세 '쉬었음' 인구 사상 처음 50만 명 돌파 (2025년 2월 기준)  
→ 구직 의욕 자체를 상실한 청년 문제가 가장 심각함  
(출처: 통계청 고용동향)



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31200531>

- 경력직 선호 심화, 수시/경력직 채용 확대
- 일자리 양극화, 관참은 일자리 부족, 일자리 미스매치
- 경기 불확실성 기업 투자 부진

: 경제 불황이나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이 신규 투자를 줄이고 채용을 보수적으로 진행하여 청년 고용이 감소함.

## AI의 역습 ... ‘혁신엔진’ 판교가 늪어간다

‘혁신의 메카’로 불린 판교(경기 성남시)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네이버는 20대 직원이 지난해 843명으로 2년 만에 33% 줄고, 지난해 신규 채용은 3년 전 대비 3분의 1로 급감했다. 인공지능(AI)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자 신규 채용 문을 좁힌 영향이다. 글로벌 AI 전쟁에 필수인 정보기술(IT) 인력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A3면  
17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40대 이상 직원은 2022년 1393명에서 지

**네이버 20대 33% 줄어들때 40대 이상은 11% 늘어**

AI 도입으로 인력 대체 ... 3년새 신규채용 3분의 1토막 나  
기업 신사업 줄이고 창업동력까지 꺼져 ... IT경쟁력 하락

대는 1141명에서 821명으로 28% 줄었다. 2021년 직원 838명을 새로 뽑은 네이버는 지난해 258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카카오도 이 기간 신규 채용을 994명에서 314명으로 줄였다.  
판교는 국내 최대 ‘나바하계서인

지만, 플랫폼·게임 등 2030세대를 대상으로 고용하던 기업들은 임직원 고령화에 맥을 못 추는 실정이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구글, 메타 등 초대형 테크 기업과 스타트업 1만5000여 곳, 벤처투자사 1000여 곳이 서로 자극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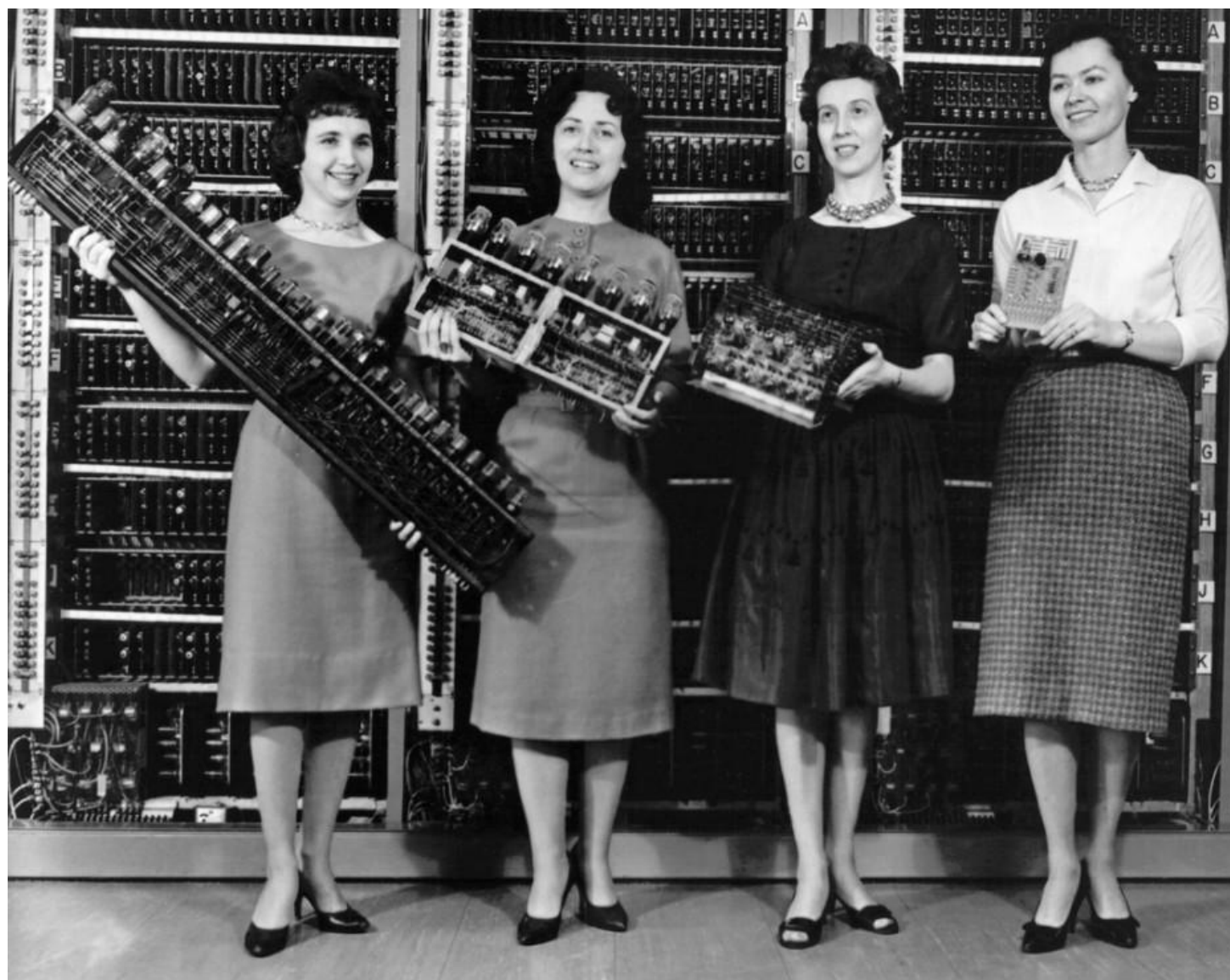
하다. 테크산업 등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직군에서 사회초년생의 진입 장벽이 과도하게 높아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앞으로 더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망 스타트업이 판교에 입주해 기존 IT기업의 긴장도를 높이는 ‘메기’ 역할을 해야 하는데 높은 부동산 시세로 쉽지 않다”며 “정규 예

## ‘코스피 500 KIW 2025



## 2. 기술의 도입과 일자리: Computers





출처: <https://www.messynessy chic.com/2021/11/02/human-computer-the-forgotten-womens-profession/>

- **여성 컴퓨터의 부상:** 19세기 후반, 천문학, 항해, 측량 분야의 과학자들은 지루하고 반복적인 계산을 수행할 인력을 고용했는데, 이때 여성들이 남성보다 저렴한 임금으로 고용되면서 이 분야에 대거 진출
- **하버드 컴퓨터:** 하버드 천문대의 에드워드 피커링은 남성 조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자신의 가정부였던 **윌리어나 플레밍**을 포함한 여성 팀을 고용함. 이들은 '하버드 컴퓨터(Harvard Computers)'로 불리며 별의 거리를 측정하는 등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이룸
- **전쟁과 우주 개발의 숨은 주역:**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포병 탄도 계산을 위해, 이후 NASA에서는 로켓 궤적 계산을 위해 수많은 여성들이 인간 컴퓨터로 활약함
- **최초의 프로그래머:**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인 **ENIAC**이 1946년에 가동되었을 때, 이를 프로그래밍한 사람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나 도구 없이 직접 회로를 연결하며 작업했던 **6명의 젊고 뛰어난 여성들이었음**



### 3. 청년고용 대공황(1931)



출처: [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 대공황 초기, 후버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임금과 고용 유지를 요청했으나, 시장 흐름을 막지 못하고 기업들은 해고를 단행. → 민간 자율에만 의존한 정책의 한계 노출
- 루스벨트의 결단 (뉴딜 정책): 정부가 직접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 (도로, 댐, 교량 건설 등)하며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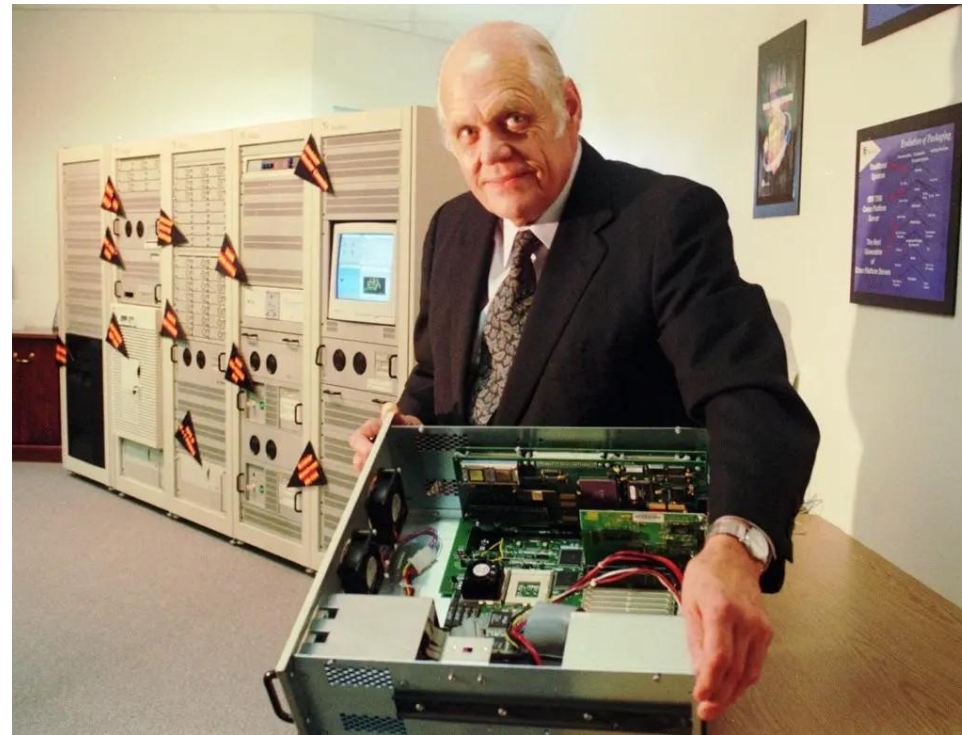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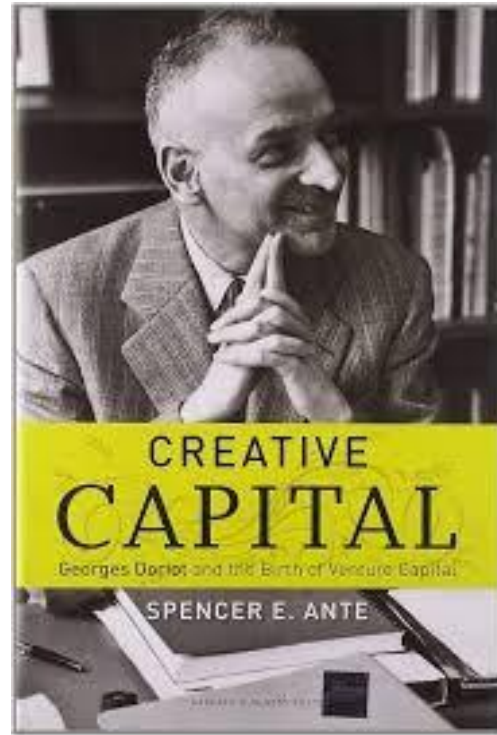


민간 산림보호단(CCC, Civilian Conservation Corps)

- 2차 세계대전 후 미국: 미국연구개발회사(ARDC) 설립. 정부 자금을 활용한 최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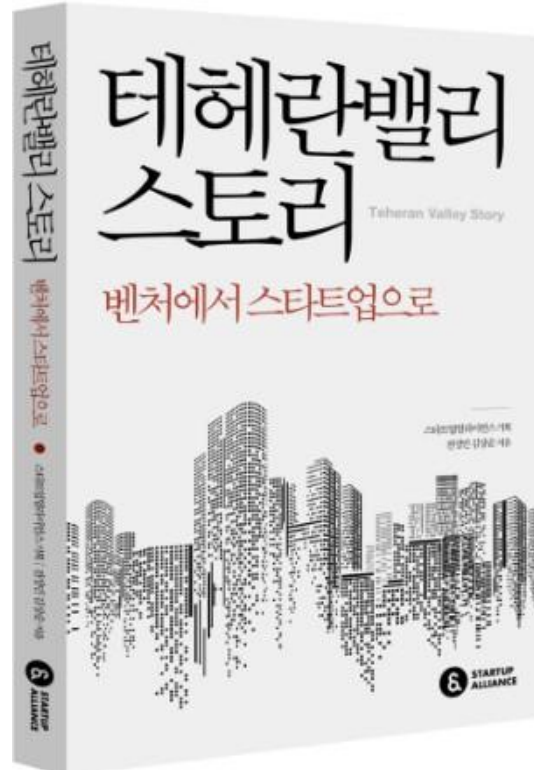
벤처캐피탈(VC) 모델 제시. '직접 고용'에서 '혁신 유도'로 전환. 장기적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General Doriot 와 Digital의 창업자 Ken Ols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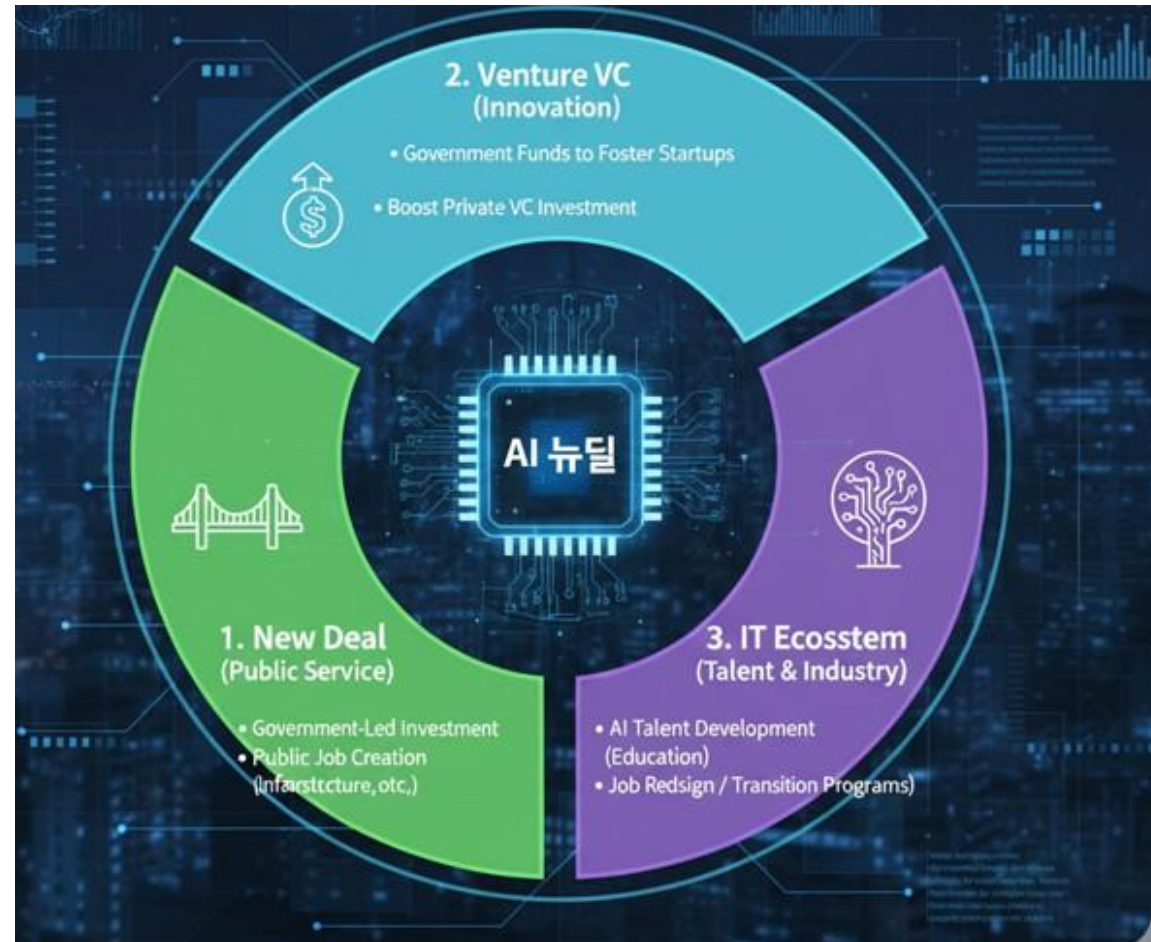


- IMF 외환위기 후 한국: 김대중 정부의 벤처 육성 정책 (특별법, 기금 확대 등) 강력 추진.

- 결과: 코스닥 열풍 및 혁신 기업 탄생. 위기를 기회로 만든 성공 사례.



#### 4. AI 시대의 일자리: 뉴딜의 비전 및 새로운 시대적 해법



과거 뉴딜(공공성), 벤처캐피탈(혁신), 벤처 육성(생태계) 모델을 결합한 21세기형 포괄적 일자리 전략.

핵심 목표: AI 시대의 구조적 변화에 맞춘 '일자리 재설계'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AI 뉴딜 전략 (I) : 인프라 및 인력 양성

(1) 정부 주도 AI 인프라 구축:

- AI 모델 개발 필수 자원(AI 칩, 클라우드 등) 선제적 구축 후 민간 개방. → 혁신 토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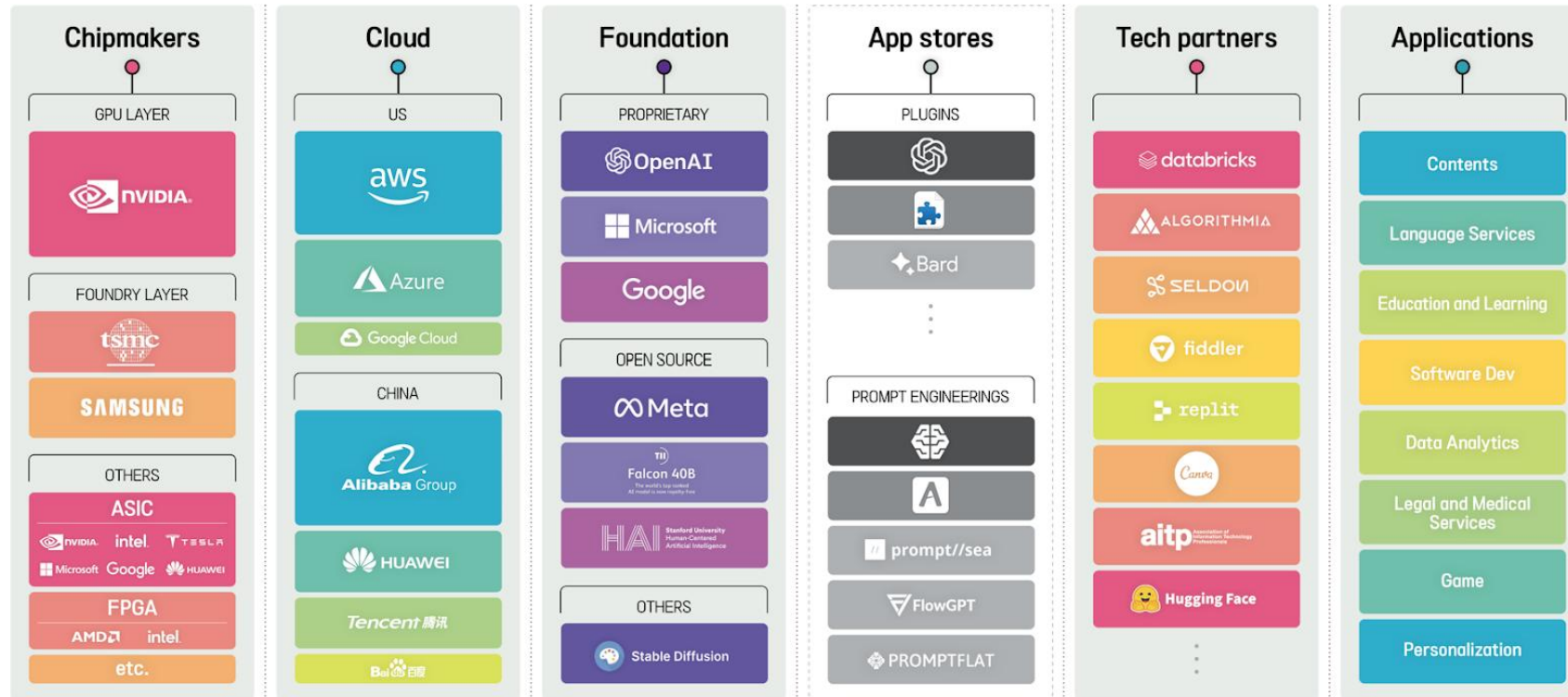
(2) AI 기술 투자 활성화:

- 정부 출자 펀드 조성 및 과감한 초기 스타트업 투자. 민간 VC 참여 유도.

(3) AI 문해력 및 재교육:

- 대체 위험 직무 종사자를 위한 재교육/직무 전환 프로그램 마련. 전 국민 AI 문해력 교육 강화.

#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지형도



Hyung-Goo Kang, Ahram Moon, Seongmin Jeon, Examining the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Landscape: Current Status and Policy Strategies,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Vol. 34 No. 1 (March 2024), 150-190 <https://doi.org/10.14329/apjis.2024.34.1.150>

# AI-플랫폼-스타트업 연계 전략이 필요하다[내 생각은/전성민]

동아일보 | 업데이트 2025-07-03 02:40 ▾

👁 0 ♡ 1

🔊 📄 🔍 🗨 📧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과 함께 민간의 혁신을 유도하는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대선 공약으로 'AI 투자 100조 시대' 'AI 관련 예산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AI 산업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K-이니셔티브' 전략을 통해 딥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유니콘 기업들을 배출해 세계를 주도하는 비전도 제시했다. 대규모의 민관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성장 단계별 투자 사다리를 설계하겠다는 전략은 한국이 글로벌 창업허브 국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 AI 뉴딜 전략 (II): 글로벌 차별화 전략

### 1. 차별화의 필요성:

- 글로벌 빅테크가 장악한 범용 AI 시장에서 정면 경쟁은 한계.

### 2. 소버린 AI (Sovereign AI) 구축:

- 핵심 자산 활용: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으로 축적된 방대한 의료 데이터는 글로벌 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독점적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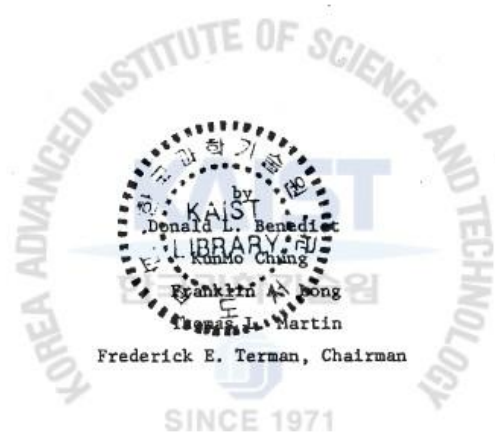
- 전략 목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 특화 소버린 AI' 구축.

### 3. 기대 효과:

- 한국인 질병 패턴 특화 AI 진단, 고령화 맞춤형 원격 의료 등 새로운 공공 가치와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결론 및 토론: AI 뉴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SURVEY REPOR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Prepared for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ecember 1970

'2025 충청권 투자생태계 SUMMIT' 개최  
전성민 가천대 교수,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주제 발표  
네이버·넥슨 등 수많은 벤처 KAIST 기숙사서 탄생  
"벤처 아이콘으로 만들어 창업 생태계 재구축해야"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가 지난 10일 대전 스타트업 파크 본부에서 개최된 '2025 충청권 투자생태계 SUMMIT' 주제 발표에서 KAIST 기숙사를 한국 벤처 아이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홍재화 기자]

## 1) AI는 위협이자, 성장의 거대한 기회

- AI는 기존 일자리를 파괴하는 위협적 현실이지만, 동시에 혁신과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엔진. 이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함

## 2) AI 뉴딜은 21세기형 '고용 창출' 해법

- 뉴딜 정신으로 AI 인프라를 공공 기반으로 구축하고, 벤처 정신으로 혁신 스타트업에 투자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
- 기술 변화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안전망

## 3) 우리의 책무: '쉬는 청년'에게 도전 의욕을 부여

- 50만 '쉬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과 공정한 기회
- AI 뉴딜을 통해 청년들이 능력을 발휘할 새로운 커리어 경로를 제시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 세대의 시대적 사명



감사합니다

[smjeon@gachon.ac.kr](mailto:smjeon@gachon.ac.kr)